

미국, 항만보안 취약 5개국 블랙리스트

항만 입항시 '보안등급 2' 보안계획 수행

미국 정부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효과적인 테러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콩고, 기니비사우(Guinea-Bissau), 라이베리아(Liberia), 모리타나(Mauritania), 나우루(Nauru) 등 5개 국가로부터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5월 23일부터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Lloyd's List에 따르면, 이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은 지난 2월에 해안경비대가 이들 5개 국가가 국제 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권고를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항만보안관련 블랙리스트(blacklist)에는 작년 가을에 9개국, 올해 2월에 7개국이 명단에 올라 있었는데, 주로 국제해사기구(IMO)나 미국 해안경비대(USCG)대에 자국의 국제해상보안규칙에 대한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5개 국가에 기항했다가 미국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들은 입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안등급 2'의 보안계획 수행, 출발항에 머무는 동안 모든 접근지점에 보안요원 배치, 보안선언서(DOS : Declaration of Security) 작성, 모든 보안조치 기록 및 입항 전 보고, 입항 후 모든 접근지점에 보안요원 배치 드을 이행해야 한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ISPS Code의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 세계 항만을 대상으로 '반테러 조치'의 보다 넓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미국항 컨테이너물동량 12% 증가

올 1-3월 280만TEU로 분기별 최고기록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통관 통계데이터 서비스 JOC-PIERS에 따르면, 올 1-3월 아시아-미국항 컨테이너물동량은 280만TEU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는 등 분기별 기준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금년 1/4분기의 두자리수 증가율은 지난 2002년 4/4분기 이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올 3월 한달간 물동량은 84만TEU로 전년동월대비 5% 가량 감소했지만, 이는 중국권의 구정월이 예년보다 늦은 2월 중순으로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4월에 들어서도 아시아발 미국 동안항 직항노선은 대부분의 선박이 만선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안항도 90% 이상의 소석률을 유지하는 등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3월중 아시아의 대미 수입 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2% 증한 40만6,000TEU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결과 왕복항의 불균형(불균형)은 왕항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복항은 48로 2월의 38에 비해 크게 개선했다.